

중국 디자인계 동향

2023 Vol.5

한국디자인진흥원 중국센터(KIDP China)

2013년부터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디자인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본부를 두고 광둥성 포산시에 현지 비즈니스 거점을 운영하며 한국 디자인 서비스 및 생활상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중국 디자인 시장 정보를 조사·제공하고 있습니다.

kidp CHINA 한국디자인진흥원 중국센터

I. 경제/산업 현황

1. 중국 20개 지역, 1분기 GDP 성장률 공개...지린성 8.2%로 1위 달성

-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4월 18일 1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한 후 4월 24일까지 총 개 성(省)에서 1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함
- 20개 지역 중 8개 지역의 GDP 성장률이 5% 이상이며, 각각 지린(8.2%), 닝샤(7.5%), 하이난(6.8%), 네이멍구(5.6%), 텐진(5.5%), 후베이(5.1%), 칭하이(5.1%), 산시(山西, 5.0%) 등지임
- 지린성 GDP 성장률이 8.2%로 전국 평균치를 3.7%p 상회하여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지린성의 경우 주력 산업인 자동차 제조업 부가가치가 7.8% 증가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함. 2월 21일 투자액이 400억 위안(약 7.6조 원)에 달하는 지린성 자동차산업클러스터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39건이 가동되었으며, 올해 관련 프로젝트를 총 167건 가동할 예정으로 투자액은 1,000억 위안 (약 19조 원)으로 예상됨

< 2023년 1분기 일부 지역(20개 성) GDP 및 성장률 >

순위	지역명	GDP 총량 (억 위안)	성장률(%)	순위	지역명	GDP 총량 (억 위안)	성장률(%)
1	광둥	30,178	4.0	11	윈난	6,852	4.8
2	산둥	20,411	4.7	12	랴오닝	6,661	4.7
3	저장	18,925	4.9	13	광시	6,251	4.9
4	쓰촨	13,375	3.8	14	산시(山西)	5,824	5.0
5	후베이	11,900	5.1	15	네이멍구	5,344	5.6
6	후난	11,660	4.1	16	텐진	3,715	5.5
7	상하이	10,536	3.0	17	지린	2,834	8.2
8	베이징	9,948	3.1	18	하이난	1,776	6.8
9	장시	7,321	1.2	19	닝샤	1,207	7.5
10	충칭	6,933	4.7	20	칭하이	889	5.1

2. 中, 1~4월 외자이용액 지난해 동기 대비 2.2% 증가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1~4월 외자이용액은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한 4,995억 위안(한화 약 94조 원)이며, 달러로 계산 시 3.3% 감소한 735억 달러임
- 제조업의 외자이용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4.1% 증가한 1,301억 위안(약 24조 원)이며, 이 중 하이테크 산업 외자이용액은 12.8% 증가함. 업종별로 하이테크 제조업, 하이테크 서비스 산업은 각각 37.1%, 6.0% 증가
- 국가별로는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의의 대중 투자가 각각 567.3%, 323.7%, 68.1%, 30.7% 급증함(자유무역항에 대한 투자액 포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투자규모가 1,700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외자 프로젝트 가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 국가통계국 관계자는 신에너지 산업과 디지털 경제 분야의 제조업 투자가 유망하다고 전했음

출처 : 중국경제망 http://district.ce.cn/zg/202305/04/t20230504_38529572.shtml
<https://finance.eastmoney.com/a/202304242701767316.html>

* 4월 9일 테슬라의 슈퍼배터리 프로젝트 체결식이 상하이에서 개최되었고 4월 26일 에어버스(空中客车) 항공기전생명주기서비스유한회사가 청두시에 설립되었으며, 5월 8일 미국 GE의료중국(医疗中国)의 의료산업화 프로젝트가 청두시 텐푸국제바이오성(天府国际生物城)에서 가동됨. 4월말까지 1~6회차 대형 외자 프로젝트에 이미 639억 달러를 투자함.

3. 중국, 1분기 일본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

-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이 58.1% 증가한 107만 대로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함
- 승용차연합회는 올해 자동차 수출량을 전년 대비 30% 증가한 400만 대로 추산함
- 글로벌 시장에서 칩, 배터리 등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유럽과 미국, 일본 등지의 자동차 기업 생산량이 감축된 반면 중국 기업들은 공급망이 원활하여 새로운 시장을 선점했음
- 4월 당월 자동차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1.7배 증가한 37.6만 대이며, 신에너지차 수출량은 8.4배 증가한 10만 대임. 1~4월 자동차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89.2% 증가한 137만 대이며, 신에너지차 수출량은 1.7배 증가한 34.8만 대로 집계됨

4. 중국 여성소비자, 온오프라인 소비 잠재력 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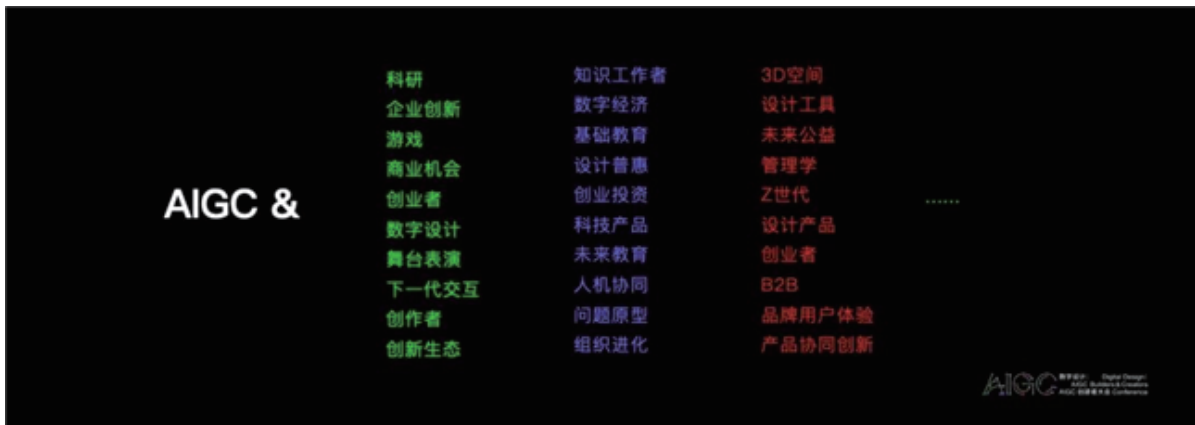
- 여성 소비자들이 생화, 영유아용품, 화장품 시장에서 온·오프라인 소비 잠재력을 분출하고 있음
- 승용차연합회는 올해 자동차 수출량을 전년 대비 30% 증가한 400만 대로 추산함
- (생화鮮花 소비)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생화 소비자 중 여성 소비자 비중이 61.4%이며, 60% 이상이 월소득 5,000~1.5만 위안(약 94~281만 원)인 중산층 소비자로 나타남. 현재 중국 내 생화 전자상거래 종사기업은 총 6.2만 개사로 이 중 2022년 신설된 기업이 2,350개임. 지역별 기업 수 1~3위는 광둥성(1.6만 개사), 상하이시 (1.4만 개사), 후난성(3,450개사)을 기록
- (영유아용품 소비) 2016년부터 두자녀 정책 보급으로 영유아용품 소비가 증가함과 동시에 2021년 기준 온라인 소비 비중이 33.8%로 상승함. 시장조사기관 아이루이컨설팅(艾瑞咨询)은 2025년 영유아용품 시장규모를 4.7억 위안(약 882억원), 온라인 소비 비중을 로 추산함. 한편 최근 영유아용품 전자상거래 투자유치 건수는 110건이며, 투자유치액은 70억 위안(약 1.3조 원)에 달함. 주로 베이징시, 저장성, 광둥성에서 각각 39건, 33건, 14건 투자가 이뤄졌음.
- (화장품 소비) 50~70대 노인과 80~90허우(1980~1990년대 출생자)의 젊은이를 막론하고 여성들의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으며, 미용원 고객 중 중노년 여성이 60%를 차지하고 있음. 현재 중국내 화장품 업체는 총 80.5만 개사이며, 이 중 2022년 신설된 기업이 8.8만 개사임. 지역별 기업 수는 1~3위 광둥성(8.3만 개사), 산둥성(7.1만 개사), 장쑤성(6.9만 개사)를 기록

II. 디자인분야 동향

1. AIGC 시대에 직면한 “디지털 디자인: AIGC 크리에이터 대회”공동 주최

상하이(上海)가 일류“디자인의 도시”를 건설하고 AIGC의 물결 속에서 디자인과 다양한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주말 1500+ AIGC 창업자들이 상하이에 모여 콘텐츠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제1회“디지털 디자인: AIGC 창업자 대회”(Digital Design: AIGC Builders and Creators Conference)는 수백만 명이 온라인 생방송을 시청했다.

“디지털디자인: AIGC 설립자 대회”는 상하이시 경제정보화위원회가 지도하고 테잔테크놀러지(Tezign)가 주최하며 통지(同济)대학 디자인창의학과 상하이혁신창의디자인연구원, 상하이디자인주간, 미진연구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대회는 AIGC 분야의 최첨단, 핫이슈를 중심으로 50 + 산학연 각계각층의 단체, 기관 및 개인이 참여하는 주제발표를 유치하였다. 200+ AIGC 분야의 선두에서 강연(Speech), 토론(Forum), 해커톤(Hackathon), 크리에이터톤(Creatorthon), 문제실험실(Thematic Cluster)을 포함한 5가지 콘텐츠 형식을 통해 AIGC와 과학연구, 기업혁신, 게임, 비즈니스 기회, 창업자, 디지털디자인, 미래교육, 산업협동, 조직진화, 미래공익, 취업, 3D공간, 관리학 등의 관점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사고하고, 토론을 통하여 하루 동안 콘텐츠 페스티벌은 AIGC의 창업자(Builders)와 창작자(Creators)를 위해 ‘쌍방향 상호작용을 위한 최적화’의 무대를 만들었다.

통지대학 디자인인공지능연구소장, 테잔테크놀러지(Tezign) 창업자이자 CEO인 판링(范凌)은 개막사에서“오늘 이 자리에서 답을 찾기보다 AIGC시대의 문제를 찾는 것이 더 많다”며“AIGC가 가능한 평범해서 상상력이 폭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It's time to Build & Create”라고 했다.

중국공정원 원사이며 통지대학 교수인 우즈창(吴志强), 통지대학 부총장이며 스웨덴 왕립공정과학원 원사인 루융치(娄永琪), 테잔테크놀러지(Tezign) 창립자이자 CEO인 통지대학 디자인인공지능실험실 주임인 판링(范凌), 통지대학 디자인창의학과 교수이자 인공지능전문가이며 여러 AI주제 “문제실험실” 멘토인 Kostas Terzidis, 통지대학 초빙교수이며 상하이혁신창의연구원 수석학술책임자인 왕민(王敏), 통지대학 디자인창의학과 교수 양원칭(杨文庆) 등이 게스트로 참석하여 이 부문에 대한 전문 지식과 미래 전망을 함께 공유했다.

출처 : 통지(同济)대학 디자인창의학과 <https://mp.weixin.qq.com/s/15m--hlts9nQy2A1wg-MTtw>



2. 2023세계 친환경 디자인 포럼 개최_중관촌(中关村)포럼

2007년에 설립된 중관촌(中关村) 포럼은“혁신과 발전”을 영구적인 주제로 하여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교류 및 협력을 위한 국가 차원의 플랫폼이 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2019년 중관촌 포럼에 축하 서한을 보내고, 2021년 중관촌 포럼 개막식에서 영상 연설을 하며 국제 혁신 교류 협력과 포럼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했다. 2021년부터 세계 친환경 디자인 포럼과 중관촌 포럼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교류 대화 플랫폼을 구축했다.

친환경디자인은 친환경 발전의 원천이며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수단이다. 올해 세계 친환경 디자인기구는 다방면의 우수한 친환경 자원을 모아“친환경 디자인 협력단지 친환경 고품질 발전”을 주제로 2023년 5월 29일 오전 중관촌 국가자유혁신시범구에서 2023세계 친환경 디자인포럼을 개최하여 전국 산업단지 및 자유무역구의 친환경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 우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며 국내외 파트너와 손잡고 혁신을 모색했다. 친환경디자인을 수단으로 각 지역의 산업단지, 국가급 단지, 자유무역구 항구의 계획적인 디자인, 녹색 저탄소, 디지털지능, 금융투자 등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국가의 녹색발전과 이중탄소 목표의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

국가적인 플랫폼·업계의 축제 2023 세계 친환경 디자인 포럼 방안

중앙심화개혁위원회는 2020년에 새로운 발전 이념을 확고히 관철하고 전면적인 전 과정에서 친환경 계획, 친환경디자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4월 유럽의회는 탄소경제조정기구(CBAM)를 통과시켜 글로벌 경제무역에 역사적 의미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말할것도 없이 중국과 유럽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 관계의 핵심이다. 친환경디자인은 친환경 개발의 원천이자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20차 당대회에서 친환경 개발 전략의 지도 하에 산업단지의 친환경저탄소 순환발전과 산업 친환경화 전환을 가속화 하는 것이 이중탄소 목표의 초점이 되었다. 이번 포럼은 국가 자유무역구의 항구 및 국가급 단지의 친환경화 건설에 중점을 두고 국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내외 파트너와 함께 혁신을 모색하고 친환경디자인을 수단으로 산업단지의 계획 및 디자인, 친환경 저탄소, 디지털 지능, 금융 투자 등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많은 산업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국가 자유무역구와 광범위한 협력 기회를 창출하여 국가의 친환경 무역발전과 이중 탄소목표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길 바란다.

3. “산업풍+트렌드문화(工业风+潮文化)” 가장 트렌드한 하얼빈과 심천(哈深) 창의디자인비엔날레, 당신의 체크인을 기대합니다!

제1회 동북아문화예술창의디자인박람회

제1회 동북아문화예술창의디자인박람회가 2023년 5월 7일부터 10일까지 하얼빈(哈尔滨)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중국공산당 하얼빈시당위원회 선전부, 국공산당 선전시(深圳市)당위원회 선전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선전국제문화산업박람회유한회사, 하얼빈일보신문업그룹유한책임회사, 선전시산업디자인산업협회(SIDA), 선전시공예미술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하심창의디자인비엔날레 (이하 '비엔날레') 는 이번 행사의 많은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시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A관에서 선보일 예정이며 70개 이상의 기업이 350여 점의 '산업풍 + 트렌드문화'를 융합한 전시품을 선보여 선전의 창의디자인의 매력을 보여준다.

오늘날 지식경제를 위주의 배경에서 창의디자인은 혁신을 추진하는 동력으로서 더 이상 단일한 전문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이미 **기업, 산업, 상업 및 문화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침투하여 도시의 미래 지속 가능한 혁신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번 비엔날레는 “**디자인 중심**”을 주제로 하고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과 도시**”, “**디자인과 농촌 건설**”, “**디자인과 브랜드**”, “**디자인과 문화**”의 5개 부문으로 나뉜다.

문자, 그림과 실물 전시품을 결합한 형태로 전시 서사 공간을 구축하고 **디자인 혁신의 창의적 성과 사례**를 제시하며 **디자인 창작의 사고방식과 방법론을 공유**하는 동시에 현재 디자인의 지속가능한 발전, 예술과 과학의 융합 등 광범위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 개발 과정에서의 창의 생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석하고 두 지역을 활성화하고 두 지역의 경제, 문화와 도시의 발전을 촉진한다.

디자인과 산업

혁신디자인으로 기업과 산업발전을 추진

디자인 혁신은 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강력한 도구이자 아이디어 방법이다. 디자인이 주장하는 혁신과 창의성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향상되는 기술 능력을 결합하여 산업의 전환, 개선 및 발전을 촉진한다.

이 부문은 두 지역의 산업 혁신 분야의 성과와 사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헤이룽장성(黑龙江省) 농업투자식품그룹유한회사**가 용강 녹색식품 자원을 전면적으로 통합하여 지역특색을 가진 여러 종류의 농산물을 가져오고 제품의 경쟁력을 통해 용강의 양질의 농산물을 표준화, 브랜드화, 클러스터화하여 수출한다. 그리고 **선전랑투디자인(深圳朗图设计)**에서 만든 “**청원호풍토(好风土)**”는 농업의 산업브랜드를 통합하여 혁신적인 농산물 포장디자인, 문화혁신이 브랜드 발전에 기능을 부여하는 전략을 보여주어 청원 농산물이 청원(清远)에서 벗어나 전국의 시장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었다.

디자인과 도시

디자인 생산력은 끊임없이 도시에 새로운 모습과 생기를 부여함

디자인 아이디어는 이러한 도시의 생활 장면과 생활 방식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선전(深圳)의 창의적인 산업 정책에서 오랫동안 쇠퇴하지 않는 브랜드 생명력과 하얼빈(哈尔滨)의 활기찬 문화생활에서 거리의 끊임없는 창의 일상에 이르기까지..

이 부문에는 선전9시정산업디자인사(深圳九点整工业设计有限公司)가 가져온 “DURGOD 두가 기계 키보드”가 있는데, 번거로운 디자인 수법을 제거하고 키캡을 배합하여 팽창화하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시각 체험을 줄 수 있어 기계 키보드 시장에 또 다른 과학기술 미래를 가져다주는 시각 스타일이 있다. 선전시설제추산업디자인사(深圳市设际邹工业设计有限公司)는 여러 종류의 미용 제품을 가져왔는데 “showyoung 미안의”는 전체적으로 립클로스 크기보다 작고 트랙원 클립핸드는 줄을 걸어 외출시 휴대하기에 편리하다. 평면 전극 헤드 디자인은 접촉면을 넓혀 눈가 피부에 더욱 밀착된다. 원터치 스위치, 조절 모드 등은 제품 사용을 더욱 편리하게 한다.

디자인과 농촌건설

농촌 활성화의 디자인역량

현 시대에 농촌건설이 어떻게 정수를 취하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며 지역 문화의 특색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현대 디자인 형식과 결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디자인 미학과 아름다운 농촌건설을 유기적으로 통합시켜 사람들의 정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가 큰 문제가 되었다.

"디자인과 농촌 건설" 부문의 "허베이재기(河北在冀)"는 지역 농산물을 리디자인하고 통합하며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유산을 촉진하며 지역 특색제품을 전시하여 지역 문화유산을 혁신적인 계획에 제공하고 향후 중국 농촌 농산물 건설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디자인과 브랜드

현대 상업문명의 공동 구축

상업에 대한 디자인의 에너지 부여 가치는 생활의 모든 측면에 존재한다. 선전의 발전 역사에서 디자인 창의성이 상업 발전의 과정에서 많은 기능을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면시대(全棉时代), HEEKCAA, gaga 등 많은 유명한 상업 브랜드를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대 상업 문명을 구축하여 현대 도시 문명의 초석 중 하나가 되었다.

이번 부문에서는 전면시대의 대표 품목의 실물 전시품을 모두 나타낸다. 예를 들면 “순면유건(纯棉柔巾)”은 100% 백금급 순면을 선발하고 양면 평무늬, 청결성, 냄새와 자극적이지 않는 안심, 행복, 지속가능한 면화 생활방식을 선도하고 있다. 그리고 “HEEKCAA”의 여러 시리즈 제품 포장 및 창의적인 디자인, 기본 패키지 + 다양한 시도를 통해 소셜 화폐에 부합하고 상호작용과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의 패키지 디자인을 하였다.

디자인과 문화

계승하며 더욱 나아가는 것

디자인은 일종의 문화이다. 그것은 전통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창의적인 유전자를 가진 문화이며, 인류가 외부 환경과 내부 수요에 대한 전방위적인 반영이며거울이다.

이 부문에서 심천과 홍콩(深港)도시/건축쌍성(双城)비엔날레는 디자인 예술과 문화의 깊은 결합을 해석하고 건축, 계획, 디자인 및 예술과 결합하여 도시의 특성을 공동으로 탐색하여 지역의 계획과 건설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제공한다. 전시 구역은 심향도시\건축쌍성비엔날레에 계획도를 비치하며 도시 정책 이념을 통하여 하얼빈 도시 건축 예술, 인문 예술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가져다준다.

2300m²의 전시공간에는 문화, 예술, 창의, 디자인 등 요소를 하나로 모은 디자인 축제가 펼쳐진다. 도시계획디자인, 농촌건설디자인, 공업제품디자인, 브랜드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농산물포장디자인 등 모든 분야에서 디자인 중심의 혁신적인 사고와 방법을 보여주고 도시발전 과정에서 창조 생태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이해한다.

선전은 중국 개혁개방의 벤치마킹 도시 중의 하나로 경제와 민생, 과학기술과 문화, 혁신과 산업발전 등 모든 방면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주변은 물론 전국에 보여주고 있다.

하얼빈은 눈부신 공업발전 역사를 가진 북방의 요충지로 건국 초기에 이미 국가 중점 건설도시 중 하나였으며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핵심 도시이며 중국의 유명한 역사문화문화이자 관광도시이다.

이번 양 도시의 융합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의 울타리를 벗어나 “하얼빈·선전”의 상호 소통을 한층 증가시킨다. 창의적인 디자인은 도시 발전을 촉진하는 강력한 요소로서 문화 경제의 다차원적인 급속한 발전을 이끌고 새로운 창작 사고와 문화 사상을 형성할 것이다.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힘을 적극 발휘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형식을 촉진하고 오래된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며 두 지역의 좋은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전파 경로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새로운 모델을 형성하며 새로운 자원을 도입하여 하얼빈·선전 상호이익을 실현하고 미래를 공유하고자 한다.



< 심향도시/건축쌍성비엔날레 - 해상세계예술센터 >



< 선전항 예술이삭 축제 >

III. 행사/공모전

1. 2023 제6회 중화디자인상 디자인전 (CSID: China Stationery Innovative Design Competition)

- 접수기간: 2023. 04. ~ 2023. 7. 31(월)
- 접 수 처: www.cidip.cn
- 모집대상: 국내외 디자인 기관, 대학의 교수와 학생, 기업, 개인 디자이너 등
- 주 최: 중화직업교육사, 대만인터넷 등
- 주 관: 상하이(上海)이튀(宜拓)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
- 주 제: 변화에 대응하여 나아가자(应变而进)
- 주요내용
 - 디자이너들이 변화하는 글로벌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국식 아이디어를 통하여 현대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최고 상금 20만위안인 디자인 어워드임
 - 생활용품, 문화혁신, 환경디자인, 농촌발전, 닝뉘시 편하이구에 대한 주제 디자인 등의 영역으로 제품류, 컨셉류 2가지로 접수 · 평가
 - 연락처: +86)571-8680-1919, award@cidip.cn

2. 제116회 중국 생활용품교역회 (CDATF)

- 행사기간: 2023.07.20.(목) ~ 07.22(토)
- 행사장소: 상하이 신국제엑스포센터
- 주 최: 중국백화점협회 (CCAGM)
- 주 관: 려전화백전람(북경)유한회사(Reed Huabai Exhibitions)
- 주요내용
 - 본 생활용품교역회는 일상 가정용품의 전문 거래 및 협력 교류 전시회임
 - 뷰티&미용용품, 유아·아동&교육&임산부, 생활용품&가구 등 산업분야를 포함
 - 연락처: +86)21-34789968, guohui010203@163.com

중국 디자인계 동향

발행일 2023년 5월 28일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발행부서 중국센터
주소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한국디자인진흥원
작성자 최기열, 조용암, 박현철
편집디자인 한국디자인진흥원
문의 kidpglobal@kidp.or.kr



ISSN 2799-3671

kidp CHINA 한국디자인진흥원 중국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 이 책에 실린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전재할 수 없습니다.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